



특 집

IMF시대의 낙농산업 생존전략



이 정 호

서울우유협동조합 지도부장

IMF 시대에 국내 낙농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은 방안은 없는가?

안타깝게도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쟁쟁한 기업들의 이름이 부도니화의 신청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연일 TV나 신문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한편으론 중소기업들의 성공사례도 종종 비친다.

그럼 이들 기업들은 획기적인 방안이나, 우연에 의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국내산업이 호황일 때 무리한 시설투자나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

인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에 힘써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키웠던 것이다.

목장에서조차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규모에 맞지않는 최신시설의 설치, 목장 경영상태도 기록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경영, 구입 사료에만 의존하는 사양체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만 한다. 「언젠가는 예전처럼 환율이 안정되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하고 수동적인 대처로는 살아가남을 수가 없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목장 경영의 승리가 되기위한 방법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낙농가의 기본조건은 기록이다.

낙농경영의 목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을 최대화하여 소득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것이다. 기록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는 행동은 무수한 시행 착오로 인하여 비용이 중복 투자되거나 과다 투자되어 목장 경영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목장 경영자는 적어도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놓고 연간 작업계획을 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낙농업은 장기적인 산업이므로 경영자의 의지는 원대하고 치밀해야 한다.

현재 착유우 20두 규모의 우사를 가지고 있는 낙농가가 노동력, 사료작물포, 차입금리 등 주변 낙농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60두 규모의 착유우사를 신축하였으나, 착유우를 30두 규모밖에 사육할 수 없다면 나머지 30두 규모에 대한 투자가 낭비가 되며 투자에 대한 자본회수가 늦어져 경영이 악화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우선 비용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려면 체계적인 낙농경영일지의 기장이 필요하다

경영기록의 미비는 원유 생산비용 및 수지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 원유대를 받아 어느 곳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목장은 언젠가는 소들을 다른 목장이나 도축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목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습관적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기록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기 목장의 비용지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개선책을 세워 실행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소득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려면 검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만 한다.

즉 검정을 통한 각종 기록을 이용하여 농가 스스로가 경영개선을 주도하여야만 한다.



이제 저능력우의 다두사육으로 수지를 맞추는 낙농시대는 끝났다. 왜냐하면 송아지 가격이나 소값이 좋던 시절은 다시 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개체별로 정확한 생산능력과 번식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한 개체를 선발·육성하는 낙농경영만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 남을 수 있다.

표 1에서 볼수 있듯이 검정농가와 일반농가와와의 연간 산유량 차이는 1,000kg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는 9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유대단가(유지율 3.7%, 세균수 1급 B, 체세포수 2급 기준) 573원을 적용해보면 연간 두당 57만원 이상, 경산우 20두를 기준하면 호당 1천1백만원이상의 소득을 향상시

킬 수 있다.

물론 검정사업에 참가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검정을 통한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사양관리의 개선, 저능력우 및 고질적 유방염우 등의 과감한 도태, 우수한 후보축의 육성 등을 실천하여야만이 가능하다. 이젠 관찰하고 실천하는 낙농가만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2. 무리한 고정투자는 화를 자초한다.

누구나 그림같은 초원에서 자동화 된 시설을 갖추고 젖소를 사육하기를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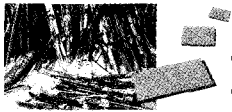
그러나 축사시설, 낙농기계 등 고정자본에 대한 신규 투자 여부는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정자본은 기간이 지날수록 감

표1. 일반농가와 검정농가 연간 산유량 차이(kg/두)

년도	1980	1985	1990	1994	1996
일반농가	4,494	4,681	5,363	5,729	5,959
검정농가	4,957	5,412	6,176	6,736	7,038

* 자료: 축협중앙회 젖소 개량부



특 집

가상각을 당해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므로 그에 대한 생산물 즉 우유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산우 20두를 보유하면서 착유를 하는 낙농가가 사료자동급여기(1,500만원)를 설치하여 경산우 25두와 30두로 규모확대시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사료자동급여기 설치에 따른 연간 1두당 투자비용 계산을 계산해 보면 25두의 경우 93천원, 30두의 경우 77.5천원의 투자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두당 순이익을 살펴보면 무설치시에는 286천원의 순이익을 얻을수 있으나 사료자동 급여기를 설치하여 25두와 30두로 규모를 확대한 경우 각각 193천원과 208.5천원의 목장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목장순이익은 4,825천원과 6,255천원이 되어 무설치 20두의 5,720천원과 비교해 보면 25두의 경우는 895천원이 감소하고 30두의 경우는 535천원의 순이익을 더 얻을수 있다.

결국 25두의 경우는 사료자동급여기가 아무리 편리하다고 할지라도 목장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즉 기계화·자동화로 인한 규모 확대·생산성증대 효과가 투자비용보다 클 경우에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투자된 시설·대농구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용련수를 연장시켜야만 한다.

고가의 장비가 방치되고 중복투자되는 일은 비밀비재하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라도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3. 토지에서 우유를 생산하자.

환율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요즘 낙농업계도 마찬가지이다. 환율에 따라서 배합사료, 수입조사료뿐만 아니라, 농가용 유류 등 농가에서 구입하는 모든 제품이 천정부지로 인상되고 있으며, 심지어 선금을 갖다 바쳐도 못 구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낙농업의 대외 의존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이 너무 편리한 구입사료에 안주해 있었으며

낙농의 기본인 토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도외시한 결과라 하겠으며 말로만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외치지 않았는가를 반문하게 된다.

원유생산비용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6년에는 40%정도였으나 사료값이 폭등한 현재는 60%로 추정되나 실제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엄청날 것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사료값도 떨어져 낙농업계도 다소 안정을 찾겠지만 이는 환율이 언제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농을 포기하는 처사와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에 영향을 받지않고 안정적으로 자가 조달할 수 조사료를 확보하여야만 한다.

개별농가에서는 사일리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작부체계를 잘 선정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여야만 한다.

표2. 사료자동 급여기 설치시의 효과

(단위:천원)

개선시설	사육규모 확대 (경산우두수)	총투자 비용	두당투자비용		두당순이익	목장순이익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무설치	20두				286	5,720
사료자동	25두	15,000	60	33	193	4,825
급여기	30두	15,000	50	27.5	208.5	6,255

* 1두당 투자비용 계산

가. 감가상각비: (구입가격(15,000천원) ÷ 내용년수(10년)) ÷ 경산우두수

나. 자본 이자: (년차별 감가상각 차감자본액 평균(8,250천원) × 이자율(10%)) ÷ 경산우두수

표3. 주요 조사료의 가격비교

	사료원	실량가격 (원/kg)	건물(%)	건물가격 (원/kg)	TDN(%)	TDN가격 (원/kg)	육우수 사일리지 TDN/건물비
자 가 조사료	옥수수사일리지	71	30	236.7	42.0	564	100
	벼 짚	190	85	224	36.4	615	109
수 입 조사료	알파파쿠브	480	88	545	53.0	1,028	182
	라이그라스 짚	380	88	432	37.7	1,028	182
	오차드그라스	380	88	432	38.0	1,132	202
	시탕수수	340	88	386	44.2	873	155

표 3에서도 볼수 있듯이 수입조 사료의 가격상승으로 이들은 옥수 수 사일레지 보다 TDN 가격 대비 1.5~2.0배 비싸다.

조사료 부족에 따른 농후사료 위주의 비정상적 사양관리가 일 반화되어 대사장애, 번식장애로 인한 가축의 경제수명이 매우 단 축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양체계 에서 자가 조사료 확보의 의의는 더더욱 크다.

4. TMR체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수입 사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사료 역시 그 가 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일부 TMR의 원료가 되는 단미 사료 가격이 배합사료보다 가격 인 상율이 높은것 역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 위 주의 급여체계보다 TMR급여체계를 권할수 밖에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첫째, 대체사료 문제이다. 배합 사료 위주의 급여체계는 배합사료, 볏짚 등 2~3개의 사료급여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다 보니 배합사료가격이 폭 등하거나, 볏짚등이 구하기 어려워 지면 목장은 이에 신속히 대응할수 없으며 배합사료의 가격이 안정되 거나 볏짚의 구입난이 해소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TMR 급여체계에서는 보통 6~8종류의 단미사료를 사용 하기 때문에 1~2가지 품목의 가 격이 폭등하거나 물량이 모자랐을

낙농산업 생존전략의 기본 실천사항은

- 낙농가의 기본조건은 기록이다.
- 무리한 고정투자는 화를 자초한다.
- 토지에서 우유를 생산하자.
- TMR체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 최상의 유질은 낙농가의 책임이다.

경우에도 충분히 나머지 품목으로 대체할수 있다.

둘째, 대사장애, 번식장애의 해 소로 인한 가축의 경제수명 연장 이다.

배합사료 위주의 급여체계에서 는 1~2가지 품목을 다량으로 급 여하기 때문에 젖소의 생리에 맞추 어 사료를 완전하게 급여할 수 없 어 대사장애나 번식장애가 발생하 여 가축의 경제수명이 단축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젖소의 평균 산차는 2.6산 밖에 되지 않는 실정

이다.

그러나 TMR 급여체계에서는 젖소의 생리에 맞는 급여체계를 유 지하므로서 가축의 경제수명을 어 느정도 연장시킬 수 있다.

표 4에서도 볼수 있듯이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은 결국 원유 kg당 젖소 상각비용을 감소시켜 생산비 를 절감시켜준다.

경제 수명이 6산인 소와 3산인 소를 비교해보면 kg당 25원의 비 용차이가 있다. 이는 유지방율 2% 의 개선보다도 효과가 큰 것이다.

표4. 젖소의 경제수명별 감가상각비

구 분	경제 수명(내용년수)				
	2산	3산	4산	5산	6산
산 차	2산	3산	4산	5산	6산
년 감가상각비	450천원	300천원	225천원	180천원	150천원
원유 kg당					
젖소 상각비용	75원	50원	37.5원	30원	25원

* ① 년간 감가상각비 : (초산우 가격 - 노산우 가 ÷ 내용년수
초산우 가격 : 1,600천원, 노산우 가격 : 700천원으로 계산
② 원유 kg당 젖소 상각비용 : (년 감가상각비 ÷ 6,000kg)

표5. TMR농가와 일반농가의 유질 및 유대비교(서울우유 95년)

	유지율(%)	체세포수(만)	세균수(만)	유대단기(원/kg)	유대수입(일/두당)
호당전체	3.88	46.5	10.6	438.8	9,976
TMR농가(A)	3.90	42.1	6.5	510.0	10,975
기타농가(B)	3.88	47.0	11.0	483.8	9,840
A-B	0.02	△4.9	△4.5	26.2	1,135



특 집

또한 표 5에서 볼수 있듯이 TMR 농가가 일반농가보다 유대수입도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

TMR로의 개선시는 10여개 목장이 연합하여 배합소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시설투자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경감된다. 고급 리시대를 맞이하여 차입에 의한 신규투자를 무리하게 한다는 것을 화를 자초할 수있기 때문이다.

혼자서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명이 투자하면 부담은 그만큼 경감된다.

둘째, TMR의 원료구입시의 장점이다.

TMR의 원료가 되는 단미사료를 소량으로 구입할 경우 그 가격은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원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큰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원료를 공급해 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5. 최상의 유질은 낙농가의 책임이다.

원유가격이 98년 1월 1일부터 평균 18.4% 인상되었다. 물론 최

근의 사료값 폭등, 제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와중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 또다시 낙농가를 괴롭히고 있다. 우유 소비 감소가 그것이다.

원유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IMF 에 따른 실업난, 실질적 소득 감소, 심리적 소비 위축등이 겹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재를 때문에 금년 우유 소비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분유재고량이 2만여톤에 다다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낙농가가 해야 할 일은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여 최고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우유 소비는 95년 유질논쟁, 96년 분유의 발암물질 검출 오보등 전례를 살펴보아도 가격보다는 우유의 안전성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유 소비가 우유가격 인상에 따라 다소 감소하지만 곧 회복되곤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우유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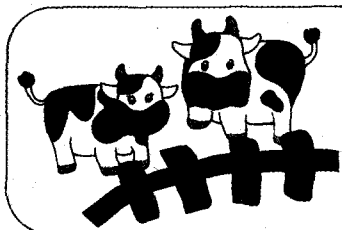
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낙농산업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질이 선진국 수준에 가깝도록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최고수준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소비자가 없으면 생산자도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 낙농가는 우유의 위생 및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좋은 우유를 생산, 공급하여 신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유 판촉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자랑스럽게 친지·이웃에게 권해야 한다.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일에는 유업체와 낙농가가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필자연락처 : 02-433-8151)



우유를 마시자